그때 그 시절 옛 사진으로 그리는 섬의 내일

김석린진사역사공원 내 우도생활사박물관 조성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11월 말까지 개관기념전

우도섬마을생활사박물관 개관기념전에 전시된 1970년대 천진항 사진. 우도 사람들이 '하늘이성창'으로 불렀던 포구다.

976세대 1800명가량이 살고 있는 우도섬.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인구수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몇 년 사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도에서 섬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그려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우도면이 주최하고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이 주관하는 김석린진사역사공원 우도섬마을생활사박물관(우도면 영일진사길 76) 개관기념전이다.

'섬에서 태어나 바람이 되다'란 제목을 단 이번 전시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섬마을의 삶과 풍경을 담은 사진이 나왔다. 우도 사람들이 간직해온 오래된 앨범 속 사진들로 모두 150점이 넘는다.

이 사진들은 2017년 12월 창간한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이 사라져가는 우도의 옛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수집해온 것들이다. 마을신문 측은 이를 계기로 우도 생활사 아카이브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달그리안은 우도8경의 제1경으로 꼽히는 '주간명월(晝間明月)'을 지역민들이 우리말로 불러온 이름이다. 달그리안 신문은 지난해부터 계간으로 전환했고 최근 여름호까지 총 8호를 냈다.

전시장 역시 의미가 깊다. 김석린진사는 1844년 우도에 입도해 마을 형성에 기여한 인물이다. 우도면은 지난 2월부터 김 진사가 기거했던 터를 정비해 방치된 초가 건물을 우도섬마을생활사박물관과 갤러리로 재구성하고 그 일대를 김석린진사역사공원으로 꾸몄다. 마을 자생단체들과 협의해 관련 비석 3기도 김 진사 터로 이전했다.

놀이패 한라산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고향인 우도에서 달그리안 마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김영진 대표는 "이 전시를 통해 우도에서 나고 자란 섬사람들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떠올리면서 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전시로 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4·3문학과 음악이 만나는 공감 콘서트

빌레앙상블 상주단체 공연
허영선 시인 산문집 이야기

문학과 음악이 만나는 공감 콘서트가 펼쳐진다. 제주빌레앙상블(대표 김남훈)이 2020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이달 14일 오후 5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이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은 끝나지 않는 제주4·3의 사연을 담은 제주 허영선 시인의 산문집 제목에서 따왔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4·3의 상흔, 제주의 아픈 근·현대사를 품고 삶을 살아온 제주의 여인들, 황홀과 비애를 동시에 간직한 제주의 역사와 자연을 창작곡으로 풀어낸다.

연주곡은 '애기업은 돌', '거친 바다', '타향살이', '한라산 굽이길', '들리나요' 등이다. 허영선 시인도 콘서트에 참여해 산문집에 얽힌 이야기를 청중들과 나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람 인원은 40명 이내로 제한됐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감동을 받은 만큼 관람료를 지불하는 '감동후불제'로 치른다. 모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협회에 전달된다. 공연 장면은 유튜브 채널(제주빌레앙상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문의 755-1215.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김광협문학상 이승예 시인

계간 발견이 주관하는 제5회 김광협문학상 수상자로 이승예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언제 밥이나 한 번 먹어요'(2020)로 심사위원회는 "실감과 상상력에 바탕한 시적 변주를 시대성을 살려 훌륭하고 아름답게 이루어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14일 오후 4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술의식물원에서 열린다. 김광협문학상은 진지한 현실인식을 견고한 서정으로 노래한 제주 출신 김광협 시인의 시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아트센터 창극 '사방지'

조선시대 성소수자의 삶을 판소리에 녹여낸 창극 '사방지'가 이달 11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선정사업으로 제주아트센터와 제이유(JU) 창극발전소가 주관하는 무대다.

조선왕조실록의 짧은 기록을 토대로 상상력을 더한 이번 작품엔 판소리계 아이돌 스타 김수인, 유태평양, 국악계 프리마돈나 박애리, 전영랑이 출연한다. 제주시 공식 유튜브 등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공연을 볼 수 있다. 문의 728-1509.

예비전속작가 지원 전시

제주시 용담로 스튜디오126에서 이달 13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비전속작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창영, 박광선, 윤상윤 3인전이 열린다.

파주에 이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주 전시는 '불편한 손'이란 제목 아래 신작을 위주로 회화 19점을 선보이고 있다. 예비전속작가지원 사업은 전업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이나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창의문화캠퍼스 시범 사업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서귀포시 지역 맞춤형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문화캠퍼스 시범 사업' 교육생을 이달 1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지문화대학, 서귀포문화대학원, 문화미디어대학, 기후위기문화대학, 문화예술교육대학 등 제1~5대학으로 구성됐다. 대학 과정별로 약 10명씩 교육생을 선발해 11월 18일부터 1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서귀포' 블로그 등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문의 767-9503.

고재만의 제주어기럼한판 <228>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제반그림글자 응용>

즘녜 골앖저. "으멩이야- 이제 오람시냐? 어디 갓당 이제 오람시? 깅이 잡아 온 걸로 깅이범벅 멩글젠 ᄒ엿저. 어디 가지 말앙 ᄒ쓸 도웨라."
으멩이 골멘. "양? 깅이 볶으켄 ᄒ지 안 ᄒ없데강?"
즘녜 골앖저. "기여게, 깅인 낭중에 볶아주커메 강 대야 ᄒ나 ᄀ졍오라."
하르바지 골멘. "으멩이야- 대야에 물 ᄀ득 담앙 깅일 ᄆ 담은 후제 깅이가 바끗디레 나가지 못 ᄒ게 소쿠리로 잘 덖으라."
으멩이 골멘. "예. 경ᄒ 다음 어떵 ᄒ여마씀?"
하르바지 골멘. "깅이가 게끔 ᄆ 바끌 때 ᄁ정 지들리민 뒈느녜."

*** 제주어 풀이**

*이제 오람시냐? : 지금 오고 있니?
*갓당 이제 오람시? : 갔다가 지금에야 오니?
*깅이범벅 : <이름>먹을 수 있는 게에 밀가루 따위를 섞어 만든 범벅.
*깅이범벅 멩글젱 ᄒ엿저 : 깅이범벅을 만들려 하고 있단다.
*양? 깅이 볶으켄 : 네? 게를 볶으겠다고.
*ᄒ지 안ᄒ없데강? : 하지 안 했어요?
*바끗디레 나가지 못 ᄒ게 덖으라 :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덮으라.
*경ᄒ 다음 어떵 ᄒ여마씀? :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게끔(개끔, 거끔) : <이름>거품.
*ᄆ 바끌 때 ᄁ정 : 다 뱉을 때 까지.
*지들리민 뒈느녜 : 기다리면 된단다.

고재만 화백

제주프린지페스티벌 뮤비 안방으로

민예총 동영상 채널 이용
축제방향 담은 뮤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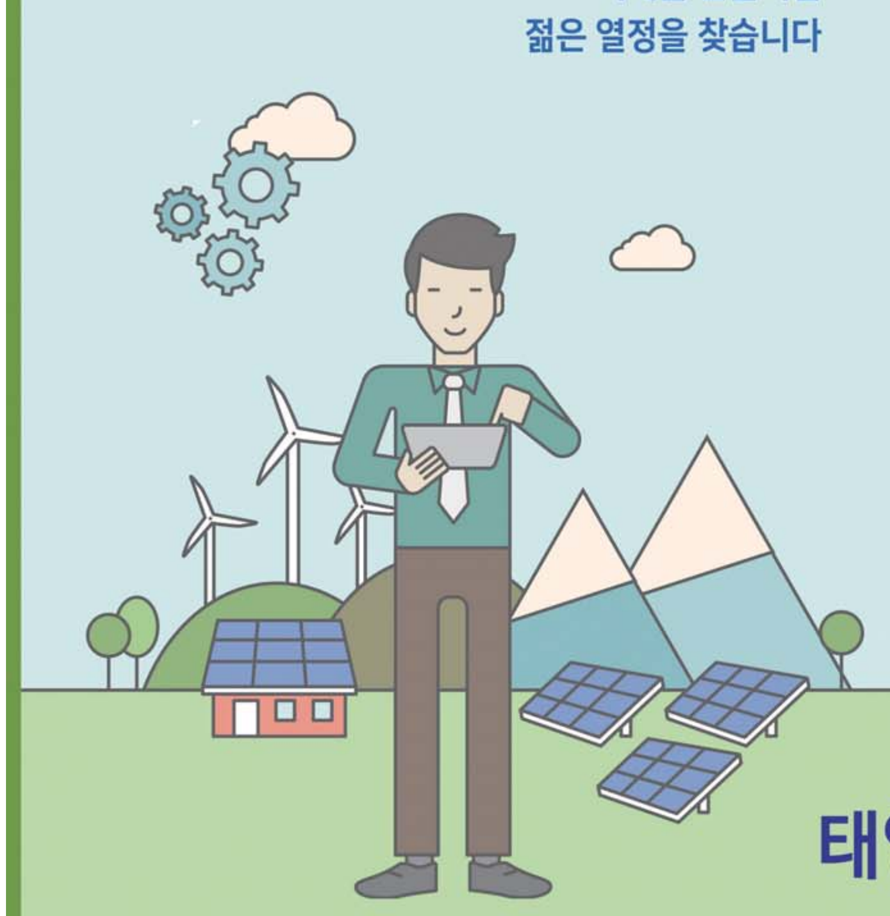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이사장 이종형)이 펼치는 2020제주프린지페스티벌(Jeff)을 안방에서 만나보자.

제주프린지페스티벌은 전문 예술인에서 동호인까지 참여해 여러 예술 창작물을 자유롭게 선보이고 관객과 소통해온 행사다. 그동안 제주시 원도심, 신산공원 일대를 주무대로 축제를 치러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행사장으로 택했다. 지난 9일부터 'On & 原(원) Jeff'란 이름 아래 축제의 의미와 향후 방향 등을 담은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완성해가는 과정과 결과물을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고 있다. 이달 27일 마지막 업로드가 예정됐다.

참여 아티스트는 음원 작사·작곡·편곡 류준영, 비트·믹스·마스터링 더티플렉스, 키보드 이은경, 일렉기타 임민수, 비올리스트 조경래, 보컬 주낸드·최수영이다. 뮤직비디오에는 비보이팀 스티즈 보이, 한국무용팀 제주도화, 크로스오버 소리께떼도 함께한다.

진선희기자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